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세종 소식

2024년-2025년

제 13호



2025년 미시간 한국 학교의 날

매주 토요일, 학생들은 학교에 가기 위해 이른 아침에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어? 토요일엔 학교가 없잖아.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

한국 학교는 매주 토요일, 학생들이 한국의 문화, 언어, 그리고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평일에 학교에 가는 것도 싫어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평일도 아닌 주말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에 가는 것은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 해 5월에는 미시간의 한국 학교 학생들이 한국의 문화, 언어, 그리고 전통을 기념하고, 한 해 동안 배운 것들과 성취한 것들을 대회와 공연 등을 통해 축하하는 “한국 학교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올 해 (2025년)에는 이 특별한 행사가 5월 3일 디트로이트 세종학교에서 열렸습니다. 미시간 여러 곳에 있는 한국 학교들 중에 8개 학교에서 약 250명의 학생들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이 날은 말하기 대회와 코리안 스펠링 비 대회, 세종학교의 전통 사물놀이 공연부터 K-rise 공연, 외국인 가수의 한국 가곡 공연, 소고춤, 한국의 독립운동 및 이순신 장군에 대해 배우는 시간까지 다양한 행사와 공연들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한민국이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지 80주년이 되는 해로, 한국독립기념관에서 파견된 노지은 학예연구사님께서 태극기의 역사와 윤봉길 의사의 독립운동과 국난 극복의 상징인 이순신 장군을 AR(증강현실)로 만나는 체험 교육을 진행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정현희 학예연구사님께서 일제강점기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펼쳐졌던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전시를 안내하며 설명해주셨습니다.

이 체험 교육에는 만들기 활동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태극기 바람개비를 만들었고, 나무 거북선을 조립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거북선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만든 역사적인 전투선입니다. 이러한 흥미로운 만들기 활동은 학생들이 방금 배운 내용을 직접 손으로 체험하며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는 이 날 진행된 말하기 대회와 스펠링 비 대회의 미시간 본선 수상자들의 발표가 이어졌고, 경품 추첨 이벤트가 열려, 행사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한국 학교의 날 행사는, 학생들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과 자긍심을 갖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한국말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미시간에서 함께 자라는 한인 학생들의 교제를 통해 동질감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글:이준우

12학년 학생 인터뷰

올해 졸업하는 12학년 학생 김단 (Lewy Kim)은 세종학교를 9년 동안 꾸준히 다녔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고등학교에 들어갈때쯤 저학년 아이들을 도와주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잘놀아줘서 아이들이 무척 좋아합니다. 김단 학생은 다른 사람들에게 재미있고, 웃기고, 좋은 성격을 많이 보여주었고 꿈을 이루려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입니다.

세종학교 후배들한테 남겨 주고싶은 조언이 있냐는 질문을 받았을때 김단 학생은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고싶은 학생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어 실력을 향상 시키려면) 학교 밖에서 한국어로 친구들과 많이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세요. 한국인 친구를 사귀려고 노력하고, 그들에게 문자도 한국어로 쓰게 중요합니다. 제경험상, 문자를 한국어로 보낼때 문법, 철자, 높임말과 문장 부호까지 연습 할 수있게 기회를 줘서 한국어 실력을 늘릴때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 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좋았던 기억이 뭐였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가장 좋았던 기억은 매주 토요일에 학교가 끝나고 다른 봉사학생들과 어울리면서 이야기하고 노는 거예요.”

김단님, 세종학교랑 고등학교 졸업을 축하 합니다!

장담그는 문화



작년 2024년 12월 3일에 유네스코(UNESCO)가 한국의 장 만드는 과정을 정식으로 인정했습니다. 처음 2016년에 대한민국 정부와 시민들이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에 장 만드는 과정이 유네스코에 등재 되기 위해서 준비 했습니다. 그후로 2018년 에는 국민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되었고 드디어 6년만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국에 대표적인 세 가지 장, 된장, 간장, 고추장은 일상에 빠질수 없는 맛입니다. 한식에 빨간, 노란, 파란 같은 색깔 이라고 할 수도 있죠. 맛있는 된장찌개, 간강게장, 그리고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비빔밥까지 다 장으로 만듭니다. 장만드는 법은 삼국시대 부터 있었습니다. 겨울에 만들어서 옹기에 보관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사의전서와 규합총서라는 장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책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맛과 문화가 세계적으로 지킴과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에 한국인들은 자랑스워합니다.

글:박연서

폭삭 속았수다

폭삭 속았수다는 제주도 방언으로 "매우 수고 하셨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들에게 수고 했다는 말을 전합니다. 1960년도 제주도에 애순이의 삶의 대한 이야기예요. 일상에 가족, 친구 그리고 자신의 어려움을 조명하는 이야기예요. 삼 세대를 따르며 흠어진 고통과 행복을 느낄수 있습니다.

모두의 생각을 알 수 있고 우리 조부모님의 삶을,나이에 상관없이 모두가 공감 할 수있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만드는 따뜻한 드라마입니다. 저는 이드라마를 보면서 느낀점이 많았습니다. 저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 시절에 이런 일들을 있었겠 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에나, 속에나 굳은살이 절로 배기는 건 줄 알았는데. 난 그냥 다 뜨거워. 맨날 데어도 맨날 아퍼. 나만 모지랭이인가? 남 들은 다 어른 노릇하고 사나?” 이 대사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 한테는 부모님도 엄마 아빠가 처음이니까 가족으로서 같이 배우 면서 사는 걸 깨달았어요. 이 많은 얘기를 아직다 이해를 못해도 폭삭 속았수다 라는 드라마에서 삶에 대해서 배우고 갑니다.



글:박연서

오이 소박이 레시피

오이 소박이는 김치의 종류입니다. 배추 김치와 달리 여름철에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한 종류의 반찬입니다. 오이 소박이의 시원한 맛과 건강에 좋고, 아삭아삭한 식감 덕분에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아래에 있는 레시피를 따라서 오이 소박이를 만들어 보세요.

재료		양념	
오이	4개	멸치액젓	2T
양파	1개	새우젓	1/3T
당근	1/3개	고추가루	4T
부추	1줌	다진마늘	1T
물	800ml	설탕	1T
소금	4T		



1. 오이를 깨끗이 굵은 소금으로 씻어요.
2. 각 오이를 4 등분으로 잘라요. 오이아랫부분에 1cm 정도 남기고 십자 모양으로 잘라요.
3. 굵은 소금 4 스푼을 물 800ml 에 넣고 중불로 끓여요.
4. 끓은 소금물을 오이에 부어 30 분 정도 절여요.
5. 오이가 절여지는 동안 양파,당근, 부추,썰어 주세요. (부추는 너무 길게 썰면 안돼요.)
6. 양념만들기: 멸치액젓, 새우젓, 고추가루, 다진마늘, 설탕을 섞다. 썰었던 양파,당근, 부추를 양념에 넣어서 가볍게 섞어요.
7. 절여진 오이에 물기를 빼주고 양념을 적당히 오이속으로 넣어요. 맛있게 드세요!

글:박다연, 박나연

수상을 축하합니다

제 29회 동요 부르기 대회:대상 최해나 (매화반)

제33회글짓기 대회: 세종대상: 윤수은 (하늘반)

제 32회 이야기 대회: 세종대상: 최서진 (하늘반)

제 5회 세종 코리안 스펠링 비:

제 18회 세종 골든벨:

박수빈 (무궁화반)
최성우 (장미반)
최서운 (해반)

난초반:백하린
무궁화반: 배설아
장미반: 최성우
해반:최서운

솔반:이라엘
달반: 박나연
별반: 김이안
하늘반: 김이안

발행일: 5월 30일
발행인:김선미 교장
편집인: 박연서
서세종소식 기자: 박연서,
박다연, 박나연, 이준우

디트로이트세종학교
saejong.org